

내꿈의 결실 내 믿음의 터전

— 호산나 농원을 찾아서 —

생산량에 의해 주문을 받는다.

광주읍내를 벗어나 10분쯤 차를 달리면 삼면이 야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평화롭고 조용한 농원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조만옥씨가 그의 어렸을적부터의 꿈을 하나씩 실현시켜온 호산나 농원(광주군 광주면 목현리 33번지소재)으로 그 이름의 종교적 색채에서 풍기듯 가장 양심적인 교리를 그대로 지키며 성장해온 농원이다.

“불량추 생산은 생각조차 해 본일이 없지요 등록이 확인된 순수한 자체생산 종란이외에는 절대로 부화하지 않습니다. 즉 주문에 의해 생산량을 결정하지 않고 생산량에 따른 주문을 받지요.” 하며 자신의 경영신조를 밝히는 조만옥씨는 68년 서울산업대(舊 시립농대)수의학과를 졸업한 수의사로 이 만큼의 성공뒤엔 건국대 축산학과출신의 부사장 전병훈씨의 노고를 앞세우고 있다. 지금 호산나에서는 한협 전용육용계 603호, 백색산란계 122호, 갈색산란계 325호의 품종이 있으며 부화기 10대가 가동되고 있는 150명 규모의 부화장을 갖추고 있다.

“호산나”가 품종인줄로 알아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영육부화장에서 1년간정도 경험을 쌓다가 그뒤 사료업에 4·5년간 종사 후 74년에 종계 2천수, 부화기 3대로 출범한이래 오늘에 이른 호산나에는 조만옥씨 자신의 집념과 그를 돕는 전문교수님의 피땀어린 노고가 그 거름을 이루었다. 철저한 방역상태하에 정결한 계사를 둘러보는記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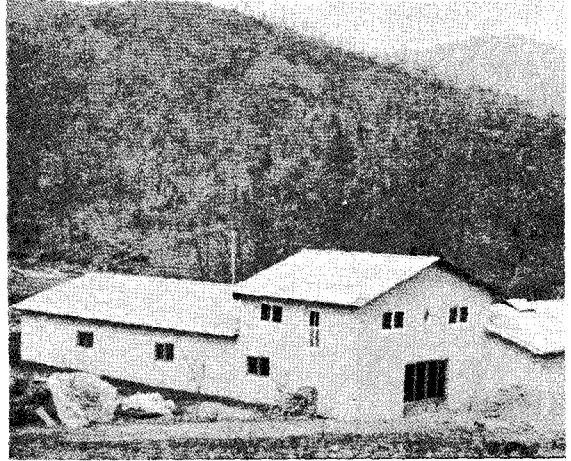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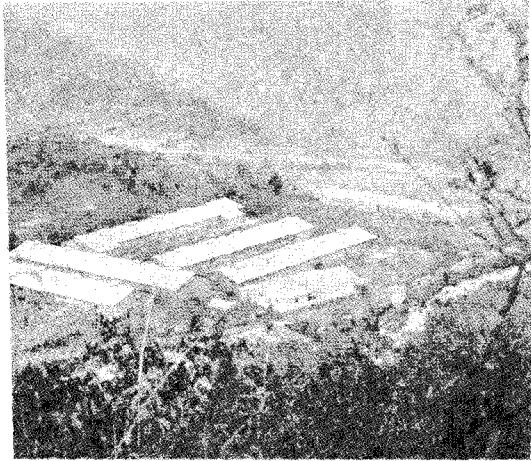
게 같은 품종이라도 다른 부화장보다 훨씬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일부 지역에선 품종과 관계없이 ‘호산나’라는 대명사로 병아리를 찾는 곳이 있다며 자랑하는 조만옥씨에게 그 비결을 묻자 “양심적인 노력으로 업자에게 신용을 얻고 종계관리, 부화관리 등 전체 사양관리면에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지요.” 하고 귀뜸하며 우리가 내놓은 병아리들이 잘 자라고 거래선이 흥하는 소식을 들을때 가장 기쁘다”며 업계의 보람을 이야기한다. 호산나는 지리적으로 보아도 맑은 시냇물을 끼고 있고 산 밑에 위치하여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어 종계장의 위치로 아주 적당하다.



〈오늘의 호산나를 이룬 조만옥씨와 전병훈씨〉

종계에게도 음악울

이제 작년에 착공한 광주군 목리의 2만평 대지에 제 2농장이 세워지면 그곳으로 종계장은 옮겨지게 되는데 제 2농장 청사진에는 테니스코트 같은 시설도 자리하고 있어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에 세심한 배려가 눈에 뜨인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음악애호도 수준급으로 국내에서는 수준이상의 앰프시설도 가지고 있고 원판만 2백여장이 넘어 한가한 시간이



〈산에서 내려다본 종계장 전경(左) 부화장(右)〉

나는대로 음악을 즐기고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종계들에게도 틈나는 대로 음악을 들려주어 잡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방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지요.” 그리고 협회에 가입한 이상 열심히 호응협력해서 업계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종합축산센터를 건립하여 수의, 사료, 부화 등 모든 축산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면을 발전시킬 터전을 마련할 생각이지요”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조만옥씨는 현 업계의 실정중 가장 안타까운 것이 공공연한 불량추 생산으로 종계수급의 결과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엄연한 유통질서의 파파로 선량한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점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 조만옥씨는 이왕 협회에서 불량추 단속에 앞장을 섰으니 과감하게 수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는다.

하늘이 함께하는 업체라는 금지속에

종계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이층 사무실의 넓은 홀에서 한가하게 음악을 들으며 제2농장의 설계도를 들여다 보고 있는 조만옥 씨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모든꿈이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씩 실현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고집이 있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뒤편 모든 것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이 뒤따른다”는 그의 불타는 의지를 믿고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대로 신념대로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 업체라는 금지속에 순풍의 뜻을 달고 성장해온 호산나 농원을 떠나오며 한번돌아 본 꾀족의 눈에 비치는 흰 스텔트지붕과 푸른 벽들이 샹목속에 어우러져있는 모습이 한폭 그림처럼 아름답다. <취재 : 安南信>